

구비문학 관련 강좌의 현황과 교양 과목으로서의 구비문학*

강성숙**

<차 례>

1. 인문학, 대학, 교양강좌
2. 구비문학 관련 강좌의 현황
 - 1) 연구범위
 - 2) 개설교과목 명칭
3. 구비문학 관련 교양 강좌의 문제점
 - 1) 교양 교육 목표 구현이 어려운 정보 나열식 커리큘럼
 - 2) 구비문학의 특성을 구현하는 교육 방법 미비
 - 3) 구비문학 주제에 대한 인식 부족
 - 4) 구비문학 표현 방식 활용 교육 부재
4. 교양 과목으로서의 구비문학을 위하여

<국문초록>

본고는 구비문학의 영역에서 대학의 교양 강좌를 어떻게 꾸려 나가야 할지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필자는 전국 123개 대학의 구비문학 관련 강좌를 조사했다. 2010년 현재 전국 70개 대학에서 330개의 구비문학 관련 전공과목을, 56개의 대학에서 110개의 구비문학 관련 교양과목을 개설하고 있었다. 전공과목의 경우, 문화나 문화콘텐츠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고, 교양과목에서는 민속·문화 관련 교과목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양과목을 중심으로 교과목 명칭과 강의계획안을 살펴본 결과 1)교양 교육 목표 구현이 어려운 정보 나열

* 본 논문은 2010학년도 인제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보조에 의한 것임.

이 논문은 한국고전연구학회 제71차 여름 학술대회(2010년 8월 24일)에서 발표한 것이다. 자료의 이용과 해석에 관한 지정토론자 노영근 선생님의 자상한 조언과 교양 과목의 방향에 대한 좌장 박일용 선생님의 통찰력 깊은 의견은 논문을 수정, 보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 인제대학교 기초대학

식 커리큘럼 2) 구비문학의 특성을 구현하는 교육 방법 미비 3) 구비문학 주체에 대한 인식 부족 4) 구비문학 표현 방식 활용 교육 부재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본고는 이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성이나 소수자의 시각 등 특성화된 시각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주제어 대학, 구비문학, 강좌, 현황, 전공과목, 교양과목, 지역성, 소수자 시각

1. 인문학, 대학, 교양 강좌

최근 다시, 인문학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인문정신의 회복을 모색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인문학, 인문 정신이 위태롭다고 진단하고 걱정하는 것이 비단 어제 오늘에 시작된 일이 아닐진대, 다시 목소리를 높이는 데에는 우리가 스스로의 인간적인 삶에 대해 그 자체로 고민하는 것조차 어렵게 만드는 버거운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정치·경제적 논리에 의해 인간으로서의 존재가치와 존엄성은 점점 더 손상되어 가는데도, 인문학은 정작 우리 삶의 변화를 이루어낼 힘을 갖지 못하고 여전히 지식과 경험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학문적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 질문하는 법을 공부하는 인문학 본연의 가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지금, 대학에서 인문학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이들에게 인문학이 토대가 되는 교양 강좌의 성격을 규명하는 문제는 이제 피할 수 없는 당면한 과제이다.

수년간 입시에 매여 있다가 대학에 들어오는 신입생들은 그들이 꿈꾸었던 대학의 로망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이내 깨닫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대학 안에서 지내는 몇 년의 유예기간을 답답하게 여기며, 한편으로 스펙에 대한 부담을 안고 열정 없이 무기력하게 지내기 일쑤다. 그들은 스스로를 ‘잉여’ 인간이라 부르며 대부분의 시간을 ‘잉여’한다. (‘잉여하다’라

는 단어는 ‘어떤 의미 있는 일도 하지 않으며 쓸데없는 일로 시간을 보낸다’는 의미의 신조어) 고학년이 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점점 대학생들에게서 학문에 대한 자발성이나 열정 등을 발견해내기는 쉽지 않다.

전공 강좌의 경우, 학생들은 평가나 진로 등을 생각한다면 학과 교수와의 관계를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비교적 수업에 충실한 편이다. 그렇지만 교양 강좌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교양 강좌는 그 선택의 기준이 다양하다. 학생들은 수강 신청을 할 때, 교과 내용 자체의 흥미도뿐 아니라 교수에 대한 선호도, 강의시간의 적합성, 과제의 분량, 평가의 기준 등에 대해 여러 경로로 탐색하여 수강 과목을 결정하게 된다. 여러 기준에서 따져 보고 교양 강좌를 선택하기는 하지만, 교양 강좌에 대해 학생들이 갖는 불만은 ‘교과내용이 다양하지 못하다’, ‘수업방식이 지루하다’, ‘과제물이 지나치게 많다’, ‘피드백을 충분히 받을 수 없다’ 등등 매우 다양하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양과목이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인식하지 못한다.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공과목보다 교양과목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는 것을 대부분 불만으로 여긴다.¹⁾

교실에서 학생들과 부딪치는 다양하고도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각 교과목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학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어온 것 같지는 않다.²⁾ 그런 의미에서 한국고전문학회가

1) 김희교, 『이것이 문제라고 본다 -학생들이 본 교양과목의 현황과 과제-』, 『인문사회 과학논문집』 29집, 2000, 광운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참조. 이 글은 대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교양과목의 문제점을 점검하고자 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이러한 문제들을 교실에서 만나고 있다.

2) 대학 교양 과목의 교수법과 관련한 연구는 주로 교양 필수 과목인 의사소통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고전문학 교육의 경우, 문화적 관점(김종철, 『국문학 연구의 문화적 패러다임 : 문학교육의 문화론적 관점』, 『국문학과 문화』, 한국고전문학회, 2001.)을 공유하면서 문학 자체의 예술성, 미의식을 강조하는 방향(심경호, 『한국 고전문학교육의 현황과 과제』, 『문학교육학』 6호, 2000.), 수용자의 상황에 맞춘 응용 교

‘대학에서의 교양교육과 고전문학’을 연구 기획 주제로 삼은 것은 시의적절하고도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정체성을 탐색하고 삶의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스스로에게 변화와 생성의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인문학이라고 한다. 이러한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청소년, 시민, 노숙자를 위한 인문학 강좌 등도 다양하게 개설되어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지금 대학 강의실은 꿈을 꾸지도 않는 우울하고 슬픈 청춘들로 가득하다. 이들과 고전문학으로 제대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본고는 구비문학의 영역에서 대학의 교양 강좌를 어떻게 꾸려 나가야 할지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연구와 교육의 경험이 일천한 필자의 수준에서 대학 교양 강좌의 방향을 설정하고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개발해 제시하는 것은 능력 밖의 일이다. 본고에서는 2010년 현재 각 대학의 구비문학 관련 강좌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이들 강좌들이 지니는 문제들을 분석하여 구비문학의 교양교육이 처해 있는 위치와 앞으로의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구비문학 관련 강좌의 현황

1) 연구 범위

구비문학 관련 교양 강좌 현황조사를 위해 먼저 국어국문학과를 비롯

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정병현, 『대학 고전문학 교육의 현상과 전망』, 『한국고전연구』 15집, 2007.) 등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각 작품 분야별로 개별적 교육방법 점검과 제안이 이루어졌으나 중·고등학교의 국어교육 연구에 비하면 연구 성과가 부족한 실정이다. 각 문학 장르 교육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구체성을 띤 교육 방법을 개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여 구비문학을 교육하는 관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를 조사해야 했다.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³⁾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서비스⁴⁾를 이용한 결과, 국내 일반 대학에 국어국문학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의 수는 123개로 확인되었다.

구비문학은 전통적으로 국어국문학과의 고전문학 전공에서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져 왔지만 1979년 안동대, 1998년 중앙대에 개설된 민속학과에서도 구비문학을 교육하고 있으므로 민속학과가 설치된 학교 역시 포함시켰다. 또한 구비문학의 텍스트나 연구 성과를 활발히 응용하는 문예창작학과, 문화콘텐츠학과 역시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최근 확장되는 추세에 있는 문화콘텐츠학과에서는 구비문학의 성격인 공동작, 쌍방향 소통, 콘텍스트를 중요하게 여기는 특성 등이 디지털 매체의 성격과 부합하기 때문에 구비문학을 활용하는 사례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국어국문학 관련학과는 국어국문학과와 민속학과, 문예창작학과, 문화콘텐츠학과로 한정했으며, 이들이 세부 전공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대상에 포함하였다.

전국대학 구비문학 관련 학과 개설 대학 현황

학과(부)명	세부전공	대학 수(개)	백분율(%)
국어국문학과		60	69.11%
국어국문학부	국어국문학 전공	24	
인문학부	국어국문학 전공	1	
민속학과		2	1.63%
문예창작학과		26	21.14%
문화콘텐츠학과(부)		10	8.13%
합계		123	100%

3)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4) 교육통계서비스(부가서비스/ 학과정보서비스) <http://cesi.kedi.re.kr/>

조사 결과, 구비문학 관련 학과가 설치된 전국 123개 학교 가운데 국어국문학과(학부 내 국어국문학 전공 포함) 설치 학교가 85개 대학(69.1%)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문예창작학과 설치 학교가 27개 대학(21.4%), 문화콘텐츠학과(부) 설치 학교가 10개 대학(8.13%), 민속학과 설치 대학 2개(1.63%)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이들 학교가 모두 구비문학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1997년에 구비문학 관련 강좌 현황 조사⁵⁾가 한 차례 이루어진 바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관련 강좌를 보강 조사하기로 했다. 1997년 당시 연구는 62개 대학을 대상으로 국어국문학과 개설 구비문학 관련 강좌를 조사하여 이루어졌다. 그 결과, 53개 대학이 구비문학 강좌를 전공과목으로, 23개 대학이 민속학 강좌를 전공과목으로 개설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당시의 조사는 구비문학 관련 전공과목 개설 여부와 전임의 비율, 교재 등을 살펴 대학 교육에서 구비문학의 위상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다. 90년대 후반 학부제의 시행으로 전공 필수 과목이 선택으로 대거 변경되었다. 구비문학 강좌의 수요가 줄어든 위기 상황은 구비문학 교육론을 활발하게 논의하는 배경이 되었다.⁶⁾

5) 최원오, 『구비문학 관련 강좌의 실태조사 보고』, 『구비문학연구』 제6집, 1998.

6) 『구비문학연구』 제6집(1998년)은 ‘구비문학 교육론’을 특집으로 기획하여 다양한 논의를 이루어냈다. 여기 실린 논문의 제목과 목차는 다음과 같다.

1. 21세기 구비문학의 문화사적 위상 - 구비문학개설류 분석과 전망에 근거하여(김현선) (1. 머리말 2. 구비문학개론 교재 분석과 문제점 진단 3. 구비문학의 문화사적 위상 4. 21세기 구비문학의 전망)
2. 구비문학 관련 강좌의 실태조사 보고(최원오) (1. 머리말 2. 구비문학 관련 강좌의 실태조사 분석 1) 개설과목명 2) 과목 담당교수 전임, 전공 여부 3) 구비문학 관련 교과목 개설학년 및 학기 3. 맺음말)
3. 구비문학 현지조사론 - 연구의 흐름과 강의안을 중심으로(황투시) (1. 구비문학 현지조사론의 개관과 전망 2. 구비문학 현지조사론 강의의 요점 2.1. 구비문학 조사의

1997년 당시 교양 과목으로 구비문학 관련 강좌를 개설한 대학은 조사 대상의 31.83%인 20개 대학이었다.(구비문학 관련 강좌 3개 대학, 민속학 관련 강좌 17개 대학 개설) 그러나 당시의 연구는 전공과목 위주로 조사 되어 교양과목의 현황을 확인하기에는 부족했다. 당시 연구는 구비문학 관련 교양 과목 개설 대학의 수를 확인하고 교과목의 내용이 주로 민속학과 관련된다는 점을 점검하는 정도였다. 그리고 이 조사가 이루어진 지 이미 13년이라는 세월이 경과하여 구비문학 관련 강좌 현황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구비문학 관련 강좌 자료의 보강 조사를 위해 2010년 5월부터 8월에 걸쳐 국어국문학, 민속학, 문예창작학, 문화콘텐츠학 관련 학과를 개설한 전국 123개 대학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교과과정과 강의계획안 등을 검색해 보았다. 홈페이지에 교육과정의 세부항목이 게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각 대학의 학과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관련 강좌에 대해 문의했다. 그 결과, 구비문학 관련 교과목을 전공이나 교양 강좌로 개설한 학교는 모두 70개로 조사되었다.

-
- 의의와 목적 2.2. 제보자 2.3. 라포 형성의 필요성과 윤리성 2.4. 기존 자료의 섭렵 2.5. 기계조작법 2.6. 현지조사 2.7. 보고서 작성 2.8. 토론 및 평가)
4. 설화 교육론(조희웅)
5. 민요론 강의의 범주와 계획(류종목) (I. 강의의 상황 설정 II. 교재에 관한 문제 III. 강의의 전반적인 틀 IV. 강의의 계획과 개요 V. 남은 말)
6. 巫歌 수업의 한 모형(박경신) (I. 서론 II. 무가 교육의 몇 가지 어려움과 그 극복 방안 III. 기존 교재의 분석 IV. 무가 수업의 실제 V. 결론)
7. 판소리론 교육(최동현) (1. 판소리론 교육의 현황 2. 판소리론 교육의 문제 3. 판소리론 교육의 목표 4. 판소리론 교육의 내용 5. 맺음말)
8. 민속극교육론(박진태) (I. 民俗劇教育課程의 獨立教科 만들기 II. 民俗劇教育課程 설계의 變因 III. 民俗劇教育課程 설계의 실제 IV. 맺음말)

전국대학 구비문학 관련 강좌 개설 대학(70개)

강릉대, 강원대, 건국대, 경기대, 경남대, 경북대, 경상대, 경성대, 경원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관동대, 국민대, 군산대, 단국대, 대구대, 대전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아대, 명지대, 목원대, 목포대, 부산대, 부산외대, 서강대, 서경대, 서남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서원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종대, 수원대, 숙명여대, 순천향대, 숭실대, 아주대, 안동대, 연세대, 영남대, 울산대, 이화여대, 인제대, 인천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제주대, 조선대, 중앙대, 창원대, 충남대, 충북대, 한림대, 한신대, 한양대, 홍익대, 평택대, 부경대, 서울디지털대, 서울산업대, 세명대, 충주대, 한남대, 협성대

- * 진한 글씨 : 전공 강좌는 없고 교양 강좌만 개설한 대학
- * 밑줄 : 전공 강좌만 개설하고 교양 강좌는 없는 대학

위의 70개 학교는 구비문학 관련 강좌가 하나 이상씩 개설되어 있는 대학이다. 이 가운데, 세종대, 한양대, 협성대 3개 대학의 경우는 구비문학 관련 강좌가 전공과목으로는 개설되어 있지 않았지만 교양 과목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상에 포함했다. 반대로 전공과목은 개설되어 있으나 교양 과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경성대, 군산대, 단국대, 명지대, 목원대, 서강대, 서경대, 서남대, 수원대, 전남대, 충북대, 홍익대, 서울디지털대, 서울산업대, 한남대 15개 대학이다. 따라서 2010년 현재 교양 과목으로 구비문학 관련 강좌를 개설한 대학은 위 15개 대학을 제외한 55개 대학(78.57%)이었다. 1997년 조사 당시 교양 과목 개설 대학이 20개(31.83%)에 불과했던 데 비하면 그 비중이 현격히 늘어났다고 하겠다. 여기에는 강좌의 성격이 민속이나 문화, 또는 문화콘텐츠 관련 내용으로 변화되었다는 점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개설 교과목 명칭

구비문학 관련 강좌를 개설한 학교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우선, 각 대학 교과 과정 안내 항목에서 과목명을 확인하고, 강의 설명이나 강의계획

안 등이 검색되는 경우에는 이를 참고하였다. 조사 과정에서 고전문학 일반을 다루는 교과목 명칭이 많이 발견되었는데, 일단 이번 조사에서는 범칭되는 고전문학 일반 교과목은 제외하고, 구비문학의 내용과 직접 연관되는 경우에만 자료를 수집하였다. 먼저 국어국문·문예창작·민속·문화콘텐츠 관련 학과에서 개설한 구비문학 관련 강좌를 전공과 교양 영역으로 분류하여 논의하도록 하겠다.

ㄱ) 전공 영역 강좌

국어국문·문예창작·민속·문화콘텐츠 관련 학과가 개설된 전국 70개 대학을 조사한 결과, 국어국문학과를 개설한 학교 가운데 세종대와 한양대, 문예창작학과를 개설한 대학인 협성대 세 곳에서는 전공 교육과정 가운데 구비문학 관련 강좌를 확인할 수 없었다. 한양대의 경우, 1998년에는 전공 <구비문학론>, 교양 <한국민속의 이해> 강좌가 개설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⁷⁾ 지금은 폐지되어 교양의 경우에도 문화콘텐츠 강좌 하나만 개설되어 있었다. 따라서 전국 67개 대학에서 구비문학 관련 전공 과목이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비문학 관련 전공과목 개설 대학 수

과목 구분(명칭)	대학 수(개)	백분율(%)	비고
구비(구술/구전/민속)문학	59개	84.29%	
하위 범주(설화/ 민요/ 민속극)	4개	5.71%	<구비(구술/구전/민속)문학>
민속·문화·문화콘텐츠	4개	5.71%	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만 조사
(개설 안 됨)	3개	4.29%	세종대, 한양대, 협성대
합계	70개	100%	

7) 최원오, 위의 글, 489면 '각 대학 국어국문학과 구비문학 관련 강좌 개설현황표(학부)' 참조.

과목의 명칭으로 그 내용 분포를 분류한 결과, ‘구비문학’ 명칭 자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여 강좌명을 설정한 경우가 59개 대학으로 대다수(84.29%)를 차지했다. 물론, ‘구술문학’이나 ‘구전문학’, ‘민속문학’이라는 명칭 역시 구비문학을 일컫는 용어이므로 조사과정에서 함께 포함했다. 구비문학의 하위범주 장르 명칭을 강좌명으로 사용한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조사 대학 가운데 90%가 구비문학 본연의 내용을 다루는 강좌를 개설하고 있었다.

반면에, 관동대, 대전대, 숙명여대, 전주대 4개 대학에서는 민속학 또는 문화콘텐츠 관련 강좌만을 개설하고 있었다. 관동대의 경우는 97년도 조사에서 <구비문학론>이 조사되었고, 대전대는 <구비문학개론>과 <민속학개론>이, 숙명여대 <구비문학론>, 전주대 <구비문학론>이 각각 개설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모두 폐지되고, 이를 대신하여 ‘한국 문화’, ‘민속학’, ‘문화콘텐츠’ 강좌가 개설되어 있었다. 학교별로 전공 담당교수의 상황이나 학교의 방침 등에 따라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이며, 국어국문학과 전공과목에서 민속문화나 문화콘텐츠 강좌가 ‘구비문학’을 대신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 것은 새로운 현상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비문학 전공자들의 노력과 인식의 변화로 인해 ‘구비문학’이라는 명칭을 단 강좌가 90% 이상 개설⁸⁾되어 있다는 사실, 국어국문학과가 아닌 문예창작이나 문화콘텐츠 관련 학과에서도 ‘구비문학’을 전공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다만 이렇게 확대 개설된 전공강좌의 성격과 교과 내용, 교육 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

8) 1997년도 조사(최원오)에서 구비문학 강좌를 전공과목으로 개설한 학교는 53개(85.48%)로, 2010년도 조사에서는 5개 대학(4.52%)이 증가했다.

구비문학 관련 전공과목 분야 분류

분야	개설과목명(전공)	과목 수(개)	백분율(%)	비고
구비(구술/구전/민속) 문학	구비문학론	26		91개 (27.58%)
	구비문학의 이해	7		
	한국구비문학론	6		
	한국구비문학	3		
	구비문학개론	3		
	구비문학의 세계	2		
	구비문학	2		
	구술문학론	2		
	한국의 구비문학	1		
	구비무학과 민중의식	1		
	구비문학의 실제	1		
	구술문학의 이해	1		
	입말문학의 이해	1		
	구전문학의 이해	1		
	구비문학의 이해와 현지조사	1		
	이야기문학과 한국 옛소설론	1		
	한국인의 삶과 구비문학	1		
	한국구비문학과 민속	1		
민속문학론	1			
(구비문학) 합계		62	18.79%	
하위 범주 (설화/ 민요/ 민속극)	설화문학론	1		
	설화의 세계	1		
	설화론	1		
	설화와 스토리텔링	1		
	이야기읽기문학	1		
	이야기문학의 세계	1		
	한국구전이야기탐색	1		
	아담과 설화의 강독	2		
	이야기와 스토리텔링	1		
	옛이야기 이해와 응용	1		
	이야기국문학	1		
	신화와 설화 다시읽기	1		
	신화와 스토리텔링	1		
	신화론	1		
	신화상상력연구	1		
	신화의 이해와 창작	1		

	한국옛노래문학	1	
	한국노래문학론	1	
	한국민요론	1	
	민요전통과 노래문화	1	
	민요론	1	
	한국가면극의 이해	1	
	전통연희론	3	
	민속극의 풍자와 신명	1	
	한국민속연희와 공연예술	1	
	판소리문학론	1	
	(구비문학 하위범주) 합계	29	8.79%
민속·문화	고전과 생활문화	1	51개 (15.45%)
	한국문학과 전통문화	1	
	한국문학의 원천	1	
	한국문학의 원형	1	
	한국민속학	1	
	민속학개론	3	
	한국의 민속문화	1	
	호남인과 호남문학	1	
	한국민속과 문학	1	
	민속문화기행	1	
	민속학과 현지조사	1	
	민속과 여성	1	
	민속예술의 이해	1	
	한국의 세시풍속	1	
	민속자료와 아카이브	1	
	민속놀이와 놀이문화	1	
	민속과 영상	1	
	한국인의 일상의례	1	
	민속학특강	2	
	무당과 굿	1	
	민속학과 관광	1	
	지역문화와 문화산업	1	
	한국문화와 문학치료학	1	
	한국의 전통문화	1	
	인천의 축재문화	1	
	인천의 언어지리와 문화	1	
	한국민속학의 이해	1	
	한국의 문화원형분석	1	
한국민속학개론	1		

	한국민속학	1	
	민속과 대중매체	1	
	한국의 축제	1	
	민속학 방법론	1	
	민속학사	1	
	아시아민속의 이해	1	
	민속관광론	1	
	민속놀이론	1	
	민속언어전승론	1	
	무속론	1	
	민속상징론	1	
	비교민속론	1	
	통과의례론	1	
	민간신앙론	1	
	민속문화론	1	
	한국민속의 개발과 응용	1	
	현대민속학	1	
	민속학의 이해	1	
	국어국문학 현장답사	1	
	(민속·문화) 합계	0	15.45%
문화콘텐츠	문화콘텐츠학입문	2	49개 (14.85%)
	문화콘텐츠탐사	1	
	문화콘텐츠개발실습	2	
	고전과 문학치료	1	
	문화콘텐츠입문	1	
	문화콘텐츠기획	1	
	지역문화콘텐츠탐사	1	
	축제콘텐츠기획	1	
	문화콘텐츠기획론	1	
	문화원형콘텐츠개발	1	
	문화콘텐츠개발	1	
	문화콘텐츠창작실습	1	
	문학과 문화콘텐츠	2	
	문화콘텐츠와 문화산업	1	
	문화콘텐츠개발론	1	
	문화콘텐츠의 이해	2	
	대중문화와 문화콘텐츠	1	
	문화콘텐츠의 기획과 실제	1	
	문화콘텐츠론	2	
	디지털스토리텔링	1	
고전문화콘텐츠	1		
문화콘텐츠와 고전	1		

고전문학과 콘텐츠	1		
콘텐츠창작론	1		
이야기와 문화콘텐츠	1		
생업전통과 지역문화상품	1		
축제문화와 축제기획	1		
한국문화와 문화콘텐츠	1		
한국고전문학콘텐츠화의 이론과 실제	1		
문화콘텐츠와 내러티브	1		
대중문화콘텐츠개발및실습	1		
문화콘텐츠 현장실습	1		
문화콘텐츠기호마케팅	1		
문화브랜딩과 문화콘텐츠	1		
디지털문화콘텐츠	1		
문화콘텐츠분석방법론	1		
신화와 문화콘텐츠	1		
축제와 문화콘텐츠	1		
이야기원형과 문화콘텐츠	1		
고전과 스토리텔링	1		
문화콘텐츠와 시나리오론	1		
문화콘텐츠와 문학	1		
고전문학과 문화콘텐츠	1		
문화콘텐츠의 이해와 기획	1		
(문화콘텐츠) 합계	49	14.85%	
구비문학 관련 개설 전공과목 총계 (구비문학+하위범주+민속·문화+문화콘텐츠)	330	100%	330개 (100%)

구비문학 관련 과목이 전공과목으로 개설된 70개 대학을 대상으로 구비문학 과목이 개설된 학교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90% 이상으로 나타난 바 있다. 위의 표는 각 대학에 개설된 관련 전공 교과목을 조사하여, 이들의 분야별 비중을 조사한 것이다. 총 330개 과목이 조사되었고, 교과목의 수로 보았을 때 구비문학(하위범주 포함) 관련 과목이 91개(27.58%)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민속·문화 분야로 51개(15.45%), 다음으로 문화콘텐츠 관련 과목이 49개(14.85%)였다. 문화콘텐츠 분야의 경우, 개별 학과의 전공 커리큘럼이 집중되어 있어 전체

비중에 비해 과목의 종류와 개수가 늘어나게 되었다. 실제로 문화콘텐츠 관련 과목은 경남대와 인하대 2개 대학에 집중되어 있고, 민속·문화 관련 과목은 안동대와 중앙대에 집중되어 있어, 구비문학 과목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하겠다. 그렇지만 전통적인 의미의 구비문학을 다루는 전공과목들이 점차 민속·문화와 문화콘텐츠 분야와의 접목을 시도하는 경향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ㄴ) 교양 영역 강좌

분석 대상인 70개 대학 가운데 15개 대학은 구비문학 관련 교양 과목을 개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⁹⁾ 현재까지 조사된 구비문학 관련 교양 강좌를 개설한 대학은 총 70개 가운데 55개 대학으로 확인되었다.

구비문학 관련 교양과목 개설 대학 수

과목 구분(명칭)	대학 수(개)	백분율(%)	비고
민속·문화	45	64.29%	
구비문학 하위범주 (설화/ 민요/ 민속극/ 판소리)	6	8.57%	〈민속·문화〉 분야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만 조사
문화콘텐츠	4	5.71%	
(개설 안 됨)	15	21.43%	
합계	70	100%	

교양과목의 경우에는 구비문학 영역에 비해 민속학 범주에 드는 교과목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비문학 관련 교양 과목이 개설된 55개 대학 가운데 81.82%인 45개 대학에서 민속·문화 관련 과목을 개설

9) 구비문학 관련 교양 과목을 개설하지 않은 15개 대학은 다음과 같다. 경성대, 군산대, 단국대, 명지대, 목원대, 서강대, 서경대, 서남대, 수원대, 전남대, 충북대, 홍익대, 서울디지털대, 서울산업대, 한남대.

하고 있었다. 구비문학 자체를 교양 과목으로 개설한 대학은 없었고, 대신 신화나 민요, 판소리 등 하위 장르를 다루는 과목이 교양과목으로 개설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비문학 관련 교양과목 분야 분류

분야	개설과목명(교양)	과목 수(개)	백분율(%)	비고
민속(전통) · 문화(지역특화)	지역사회문화론	1		
	영동지방의 역사와 민속	1		
	동아시아문화원류와 강원의 신명문화	1		
	한국의 역사와 문화	2		
	강원의 문화와 사상	1		
	한국의 전통문화	4		
	한국민속과 전통문화	2		
	한국문학과 성	1		
	영남지역의 이해와 답사	1		
	한국민속의 이해	4		
	한국문화의 이해	1		
	한국의 민속	4		
	한국의 전통과 문화	1		
	한국인의 삶과 민속	1		
	한국전통문화의 이해	4		
	영상으로 보는 우리문화의 원형	1		
	한국고대의 생활과 문화	1		
	한국의 역사와 전통문화	1		
	한국인의 삶과 가치관	1		
	민속학의 이해	5		
	민속문화의 이해	1		
	구술사와 기록관리	1		
	부산경남지역사회연구	1		
	호남지방의 역사와 문화	1		
	민속문화와 전통문화	1		
	한국인의 삶과 미의식	1		
	부산의 역사와 문화	1		
	한국의 민속문화	1		
	한국인의 삶과 문학	2		
	우리민속과 민속문화	1		
	아산문화의 이해와 탐방	1		
	고전을 통해 본 생활의 지혜	1		

		한국전통사회의 생활과 문화	1	
		한국의 고전문화	1	
		문화와 영상	1	
		안동지역의 전통문화	1	
		축제문화의 이해	1	
		영남문화유산의 이해	1	
		한국사와 한국문화	1	
		문화로 읽는 한국인의 역사의식	1	
		선인들의 문화공간과 예술	1	
		한국전통문화기행	1	
		한국문학 속의 풍속	1	
		한국문학과 문화현상	1	
		한국민속문화	1	
		충청지방의 역사와 문화	1	
		한국지방의 역사와 문화	1	
		지역문화와 축제	1	
		제주의 역사와 문화	1	
		제주해녀와 에코페미니즘	1	
		우리문화	1	
		한국문학과 전통	1	
		(민속·문화) 합계	71	64.55%
구비문학	민속문학	한국의 민속문학	1	(1개)
	신화	신화와 문화	1	(14개)
		신화와 철학	2	
		신화와 영화	1	
		신화와 문학	1	
		신화의 세계	2	
		신화와 예술	1	
		역사와 신화	1	
		동아시아신화기행	1	
		여성과 신화	1	
		신화의 이해	1	
		신화적 상상력과 문화	1	
	신화와 사상	1		
	이야기 문학	이야기와 인간관계	1	(4개)
		이야기문학의 이해	1	
이야기와 삶		1		
이야기문학과 인생		1		

민속극	한국의 전통연희와 동아시아	1	(2개)
	한국의 탈춤	1	
판소리	판소리의 이해	2	(5개)
	판소리와 창극의 세계	1	
	판소리감상	1	
민요	한국민요와 대중가요	1	
(구비문학 범주) 합계		26	23.67%
문화콘텐츠	지역축제와 이벤트	1	
	문화콘텐츠 비즈니스	1	
	한국문학과 문화콘텐츠	1	
	한국의 문화콘텐츠	1	
	문화콘텐츠의 이해	1	
	한국민속문학과 콘텐츠	1	
	문화콘텐츠와 창조적 상상력	1	
	디지털스토리텔링의 이해	1	
	이야기문학과 문화콘텐츠	1	
	문화콘텐츠와 뉴미디어	1	
	문화콘텐츠입문	1	
	문화콘텐츠의 비전과 전략	1	
문화산업과 문화콘텐츠	1		
(문화콘텐츠) 합계		13	11.82%
구비문학 관련 개설 교양과목 총계 (민속·문화+구비문학 하위범주+문화콘텐츠)		110	100%

전공 영역과는 달리 ‘구비문학’이라는 용어를 교양 과목의 명칭으로 채택하는 학교는 없었다. 물론 ‘민속문학’이라는 교과목을 개설한 학교가 4 곳이 있지만 이 역시 ‘민속’이라는 ‘전통문화’의 의미에 기댄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¹⁰⁾ ‘구비문학’이라는 명칭이 아직도 국문학과 학생이 아니면 생소한 학문적 분류 명칭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므로 ‘민속문학’이라는 명칭이 선호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교양과목 영역에서는 구비문학이나 민속문학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과목보다는 ‘민속문학’ 즉, 구비문학 영역의 하위범주인 ‘설화(신화, 전설, 민담)’, ‘민요’, ‘판소리’, ‘민속극’ 등이

10) 부산대 - <민속문학과 전통문화>/ 서울시립대 - <우리민속과 민속문학>/ 송실대 - <한국민속문학과 콘텐츠>/ 협성대 - <한국의 민속문학>

교양 과목으로 개설되는 점이 눈에 띈다. 그런데 판소리나 민요, 민속극이 개별 교과목으로 개설되는 경우, 음악대학이나 체육대학에서 개설하는 체험 성격의 과목인 경우도 있어서 문학적 성격만을 중심으로 하는 과목으로 보기는 힘들다.

그나마 설화의 경우, ‘신화’나 ‘이야기’ 등의 명칭을 지닌 과목이 비중 있게 나타난다. 구비문학 범주에 속하는 26개 과목 가운데 신화가 14개, 이야기문학이 4개 과목으로 조사되었다. 개별 하위 장르 가운데서는 신화가 단연 선호되는 교과목으로 나타났다. 신화의 경우 서양신화나 동아시아신화를 함께 다루거나 영문학과, 독문학과, 중문학과, 철학과 등에서 개설하는 경우가 많아서 현재 한국구비문학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강좌는 그리 많지 않다. 그렇지만 ‘신화’ 강좌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문학의 영역에서 신화 영역의 강좌를 적극적으로 개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교양 강좌 명칭 조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민속(전통)’, ‘문화’라는 용어가 포함된 과목이다.(조사된 구비문학 관련 교양과목 110개 가운데 64.55%인 71개 과목) 97년도 조사에서도 민속학 강좌의 대부분이 전공 아닌 교양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¹¹⁾ 당시 조사 대상 62개 대학 가운데 민속학 과목을 교양으로 개설한 학교는 19개였다. 이번 조사에서 민속학 관련 교양 과목을 개설한 학교 수는 40개(57.1%)로, 민속 또는 전통문화 관련 강좌는 교양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증설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구비문학이나 민속학이 문화로 접근할 때 훨씬 쉽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통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학생들의 인식이 더해진 데다, 최근 지역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추세도 문화 영역 교양 과목이 증가하

11) 최원오, 위의 글, 483면 ‘민속학 개설과목 현황에 따른 분석’ 참조.

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하겠다.

그러나 고전문학이 문학 자체의 미학과 예술성, 인문학적 깊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교양 과목으로 구축되지 못했다는 사실은 문제적이다. 고전문학, 그 범주 내에 있는 구비문학은 과거의 전통을 이루는 일부로 인식되거나 그야말로 상식 수준의 교양, 문화적 기저로 인식되어 교양 민속학이나 전통문화 강좌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물론 그 자체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고전문학 교양 강좌의 내용과 성격을 다양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¹²⁾

교양 강좌에서 드러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구비문학을 문화콘텐츠로 활용하는 교과목이 새롭게 등장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구비문학은 다른 고전문학 장르에 비해 형성 기반이나 생성 방식 등이 디지털 미디어와 친연성이 많다. 따라서 가장 먼저 문화콘텐츠로 활용되는 분야였다. 이를 반영하듯 교양 강좌에서도 ‘민속문학’과 ‘콘텐츠’를 연계한 강좌의 명칭이 많이 보인다. 또한 ‘문화콘텐츠’를 다루는 교과목이 구비문학의 내용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이를 관련 강좌에 포함시켰다. 그 결과 전체 강좌의 11.82%인 13개 과목이 문화콘텐츠 관련 강좌로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과목은 지역학, 문화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구비문학과 넘나들면서 내용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다양한 개발이 기대되는 분야이다.

대부분 구비문학 관련 강좌는 교양 영역별 선택 과목이나 일반 선택 과목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순천향대학의 경우처럼 교양필수 교과목(〈우리

12) 현재 교과 과정 편성 내역만으로 구체적인 강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확인되는 몇몇 강의안을 살펴 본 결과, ‘민속문화’나 ‘한국의 삶’ 등을 표제로 삼는 강좌가 다루는 내용 안에서 구비문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많지 않다. 또한 구비문학의 ‘문학’적 성격을 구현할 수 있는 활동이나 교수법 등이 특성화되었다고 보기는 힘들었다.

문화〉, 2시간 1학점)으로 채택된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필수과목인지 선택과목인지의 여부보다 먼저 구비문학 관련 교양 강좌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움직여나갈지 할 것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3. 구비문학 관련 교양 강좌의 문제점

대학의 교양 강좌는 전공교육의 토대로서뿐만 아니라 교양 강좌 그 자체로 교육적 의의와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 강의의 수준 역시 일반적 상식이나 기본적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을 요구하는 고급 과정도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지식기반 사회에서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평생 학습을 이어나가려면 지식을 수용하는 능력뿐 아니라 전달,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전공과 직업이 세분화되는 지금의 상황에서 학교 교육만으로 평생을 영위하기는 힘들다. 전인교육과 학제 간 교육 등을 통해 학문하는 태도와 방식을 익혀 보편적 진리를 깨닫고 스스로의 삶을 변화시키는 동력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의 교양 교육이 실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의 교양학부, 교양학과, 기초대학 등이 설립되고 확대 개편되는 데에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이 전제되어 있다고 하겠다.

지식이 표출되는 방식은 한 가지가 아니다. 말이나 글로 전달 받아 대상을 이해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체득하고, 체화된 지식을 스스로의 삶 속에서 의미 있게 살려낼 수 있어야 한다.¹³⁾ 현재 개설된 구비문학 관련

13) 지식기반사회에서는 말이나 글로 전달되는 지식인 ‘형식지(explicit knowledge)’보다 체화된 지식인 ‘암묵지(tacit knowledge)’가 중요시된다. 지식의 창출은 암묵적 지식을 형식지로 바꾸어 나가는 전환에서 발생한다. - 한준상, 『모든 이를 위한 안드라고지(LIFELONG EDUCATION)』, 학지사, 2000. 참조.

교양 강좌는 과연 이러한 모색이 개재되어 있는 것일까?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구비문학 관련 교양 강좌의 문제점을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 향후 교양과목으로서 구비문학의 성격과 방향을 정립하려고 한다.

1) 교양 교육 목표 구현이 어려운 정보 나열식 커리큘럼

구비문학 관련 교양 강좌 가운데 대부분이 실제로는 ‘민속’, ‘문화’의 명칭을 사용하는 강좌이다. 이번에 조사된 구비문학 관련 교양 강좌의 수는 모두 110개인데, 이 중 71개가 ‘민속’, ‘문화’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전체 강좌의 64.55%에 해당한다.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민속과 전통문화〉, 〈한국 민속의 이해〉, 〈한국인의 삶과 민속〉 등의 표제를 달고 있는 대부분의 민속·문화 강좌는 그 다루는 내용이 광범위한데, 세 시풍속부터 민간신앙, 민속놀이, 신화, 전설, 민담, 민요, 무가, 탈춤, 판소리, 전통악기, 전통춤, 민화, 양반의 삶, 여성의 삶 등등 한 학기 강좌에서 그야말로 가지각색의 것을 다 다룬다. 구비문학 역시 민속·문화의 일부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구비문학 관련 교양 과목으로 조사된 강좌의 대부분이 다양한 스펙트럼의 문화 내용을 한꺼번에 다루고 있다는 사실은, 구비문학과 관련된다고 생각한 교양 과목 대다수가 심도 있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실상을 말해준다. 교양 교육에 대한 기존의 지배적인 생각이 구비문학 관련 강좌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양 강좌는 수강하기에 부담 없는 가벼운 것이며 학점 따기 쉬운 과목이라는 생각이 보편화되면서 대부분의 교양 과목이 학문적 호기심을 자극하지도 못하고 자기 삶과의 연관성은 더더욱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한 학기 동안 민속·문화의 다양한 커리큘럼을 소화하려면 백화점식 지식의 나열 외에 다른 대

안을 찾아보기는 힘들 것이다. 이러한 교양 강좌의 운영은 교양 교육의 내용이 가벼워도 된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다시 강화하게 된다.

대학에서 문화를 배운다는 것은 특수한 문화의 성격과 가치를 발견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그 보편적 가치를 궁구하여, 자신의 삶에서 만나는 문화적 경험을 의미 있게 살려내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지식을 제공할 것이 아니라 지식 창출을 위한 일련의 진행 과정이 필요하다. 지식의 수용 단계에서 서로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다음으로는 대화나 토론 등으로 알고 있는 지식을 표출해야 하며,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과 새로 알게 된 지식을 통합하고 연결하는 과정을 거쳐 마지막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¹⁴⁾ 집적된 정보 자체가 지식의 창출은 아니다. 이는 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소통하여 내 삶을 달라지게 만드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교양 교육의 목표이다. 이를 위해서는 커리큘럼 내에 교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소통과 교류의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교양 강좌의 교수자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만나고 접하는 문화와 전통문화와의 연결 고리를 찾아 실마리를 제공하고 나아가 학습자가 이러한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2학기 추석 기간 전후로는 추석의 기원과 관련된 설화와 풍습을 학습하고 자신이 이번 추석에 하는 일을 꼼꼼히 관찰하게 하여 명절이 지닌 의미와 가치를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차례를 지내기 위해 음식을 장만하는 과정부터 차례의 절차에서 만나게 되는 불편하고 부당한 점이 있다면 새로운 명절 보내기를 위한 제안과 실천을 할 수도 있다. 추석명절에 하는 놀이가 대중문화나 소비문화와 관련된다면 이를 바라보

14) 노나가 이쿠지로, 『지식창조의 경영』, 이십세기북스새날, 1995. 참조.

는 시각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변화를 모색해도 좋을 것이다. 지역적이고 막연한 생각이지만, 교양 교육의 목표 실현이라는 과제를 놓치지 않고 교양 강좌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나간다면 분명 지금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리라 예측해 본다.

2) 구비문학의 특성을 구현하는 교육 방법 미비

구비문학은 소통적 환경에서 생성되고, 여러 사람이 전승에 참여하면서 공동의 가치를 담보하며, 소통 과정에서 개인의 구체적이고 특수한 상황이 개입되는 특성을 지닌다. 구비문학 관련 교양 강좌에서는 이러한 구비문학의 특성을 교육 방법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구비문학의 문화 콘텐츠 활용 수업에서 공동 현장 학습과 토론, 전승 실험, 홈페이지 활용 등의 시도가 있기는 하지만 주로 국어국문학과 전공 수업에서만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¹⁵⁾

교양 과목에서 이러한 소통이 이루어지려면 교육 방법 개선에 앞서 행정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 멀티미디어 사용 교실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고 소규모 강좌로 인원수를 제한해야 한다. 무엇보다 현장 학습이나 실험을 계획하고 조정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교수자의 노력과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방안을 찾아 교수자와 학교 당국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15) 신동훈은 구비문학의 교육과 학습이 생활문화의 현장과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고, 다양한 시청각 자료 외에 이야기판과 일터, 굿판, 소리판과 탈판의 현장에서 살아 있는 문학과 만나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를 위해 각종 공연장이나 축제행사장, 이야기판 등을 찾아 경험하도록 하여, 문학과 생활 현장의 거리를 좁히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학생들의 생각을 공유하고 서로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어 교육의 성과를 높이고 있다. (『21세기 구비문학 교육의 한 방향 - '신화의 콘텐츠'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15집, 2007년.)

3) 구비문학 주체에 대한 인식 부족

구비문학은 기층민에게도 허락된 문학이었다. 문자를 모르는 사람도 노래를 하거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구비문학의 현장은 노동과 생산의 터전인 경우가 많으므로 기층민이 더 많이 향유했다고 볼 수도 있다. 물론 계층 간의 소통도 구비문학의 영역에서는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개방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구비문학의 향유층은 가지지 못한 사람이며 그래서 불운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구비문학을 통해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꿈을 꾸고 부조리한 현실과 맞설 힘을 얻었다. 그래서 구비문학의 주인공은 늘 가난한 노총각이고 힘없는 어린아이이며 소리 내어 주장할 수 없는 여성이다. 구비문학의 향유층과 작품 속의 인물을 생각해보면 구비문학은 소수자의 문학과 연결될 수 있다.

현재 구비문학 관련 교양 강좌를 살펴보면 문학의 주체를 고려한 강좌는 〈여성과 신화〉, 〈제주해녀와 에코페미니즘〉 정도만 눈에 띈다. 관점을 갖고 대상을 바라보면 훨씬 많은 것들이 보이고 자신의 문제와 연관 시키기에도 유리하다. 나이, 성, 인종, 계급, 민족적 차별을 문제 삼는 동시에 개별성에 대한 인식을 놓치지 않아야 구비문학이 지닌 저항성과 변혁성이 건강하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구비문학 관련 교양 강좌에도 다양한 소수자의 관점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4) 구비문학 표현 방식 활용 교육 부재

구비문학의 전승자는 목소리, 표정, 몸짓 등을 동원하여 노래를, 이야기를, 춤을 전달, 전승한다. 자신의 노래가, 이야기가 수용되려면 듣는 사람의 감각을 장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구비문학 전승자는 다양한 소통의

방법을 활용한다. 몸짓이나 표정 언어를 동원하기도 하고 구비문학의 구조적 특성을 잘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전승하며, 언어적 감수성을 발휘하여 수사적 표현을 하기도 한다.

효과적인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구비문학의 표현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은 의사소통 관련 과목에서 활용할 수 있다. 기존의 글쓰기 교과목에서 구비문학이 활용된 사례가 많았지만, 이는 교과와 다른 목적을 위한 도구적 수단으로만 치부되어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다시쓰기 등의 활동으로만 활용되었다. 문학의 활용 측면을 강조하는 7차 교육과정 이후, 고전문학을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위한 도구로 인식되는 폐해가 더욱 빈번히 생겨났다.¹⁶⁾ 구비문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표현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깊이 읽는 법부터 교육해야 할 것이다. 작품을 꼼꼼히 읽고 나서, 그 구조나 표현의 수사를 활용한다면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익힐 수 있을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문학 교육은 작품의 이해 수준에서 나아가 이를 통해 스스로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식의 체화가 일어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한 방송국에서 <7일간의 기적>이라는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자신에게는 필요 없는 물건을 기부하여 다른 사람을 돕는 공익성을 띤 프로그램이다. 선글라스가 원피스로, 하회탈이 안동 한우로, 결국에는 새로운 집을 교환하게 되는 식이다. 이 프로그램을 접했을 때, <새끼 서 밭>이

16) 이에 문학 교육 자체의 의의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반성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강욱은 고전소설 교육 방향을 논의하면서 민족적 정서와 사상 터득, 초현실세계와 현실세계의 관계에 대한 유기적 성찰, 삶에서의 우연과 필연의 문제, 금기의 극복과 시간의 확장, 생활이념의 제공 등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정보 제공보다 이해의 틀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했다. - 이강욱, 『초등학교 고전소설 교육의 의의와 방향』, 『어문학』 제88집, 한국어문화회, 2005.

야기가 생각났다. 이야기의 구조와 형식이 닮아 있기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에 개입하고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는 그 소통의 생명력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구비문학 관련 교양 과목에서 학생들이 이러한 구조를 발견하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 방안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4. 교양 과목으로서의 구비문학을 위하여

교양교육의 목표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통해 사회의 다양성에 내재되어 있는 인간의 보편성을 찾아내는 것이다. 다른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세계관을 인식하고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문 간 학제 간 협력으로 공통 과목을 개설하여 공통 주제를 향한 다각적인 안목과 상호 체제를 구축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또한 교양교육의 비중을 늘려 전공교육과의 격차를 좁히는 작업도 절실하다.¹⁷⁾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는 우선 개별 문화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 구비문학이 공동작이지만 특정한 상황의 개별적 개인이 주체가 되어 창작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구비문학의 전승 기반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로는 특정한 개인뿐 아니라 특수한 지역성을 꼽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듯 특수한 기반은 특정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학습자 개인의 위상과 맞물리면서 지식의 전수가 일어날 요건으로 작용하게 된다.

앞서 3장 1절에서 민속·문화 강좌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지나치게 많은 범주의 다양한 내용을 다룸으로써 교육의 방향이나 목표를

17) 최미리, 『미국과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 비교』, 양서원, 2001.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두루뭉술한 내용과 특성화되지 않은 교육 방법은 학습자 개인에게도 학습 의욕이나 흥미를 일으키기에 역부족일 것이다.

그래도 대안은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 문화·민속 강좌 가운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 제법 눈에 띈다. 민속·문화 관련 교양 강좌 71개 가운데, 지역 특화 과목이 14개이다. 구체적으로 <영동지방의 역사와 민속>, <지역사회문화론>, <동아시아 문화원류와 강원의 신명문화>, <강원의 문화와 사상>, <영남지역의 이해와 답사>, <부산경남지역사회연구>, <호남지방의 역사와 문화>, <부산의 역사와 문화>, <아산문화의 이해와 탐방>, <안동지역의 전통문화>, <영남문화유산의 이해>, <충청지방의 역사와 문화>, <제주의 역사와 문화>, <제주해녀와 에코페미니즘>이 그것이다. 지역 기반 대학에서는 점차 지역학 관련 강좌를 개설하는 추세이다. 최근 천안 지역의 대학들이 ‘천안학’ 강좌를 교양과목으로 개설한 것도 이러한 흐름에 있는 것이다.¹⁸⁾

문화적 ‘지역화’는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역모순 없이 인간다운 삶을 바람직하게 누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개념이다. 이는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살리는 것에서 나아가 지역공동체 속에서 공동체 성원들이 누렸던 지역문화주권과 문화 창조력을 회복하는 데까지 관심을 기

18) 전국에서 대학이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천안에는 대학이 13개이고, 이들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 7만이 넘지만 이들의 80%이상은 수도권 학생들이라 천안은 그 지역적 성격에 대해 나름의 고민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천안시와 천안발전연구원내의 천안학연구소가 ‘천안학’을 제정했고, 2009년 봄 학기부터 나사렛대학교와 상명대학교, 호서대학교에서 교양과목을 개설한 것을 시작으로, 가을학기에 남서울대학교, 단국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도 개설되었고, 2010년에는 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을 제외한 천안의 모든 4년제 대학들이 개설했다. 강좌는 주 1차례 2시간씩 16주 과정으로 운영된다. 전현직 대학교수, 지역의 주요 인사 등으로 강사진을 구성하여 천안의 역사, 인문, 지리, 교육, 문화, 관광, 환경, 산업 등 여러 분야를 특강 방식으로 진행하며, 현장답사 및 발표, 토론 등으로 진행한다. - 위키백과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10XX461427>

울이다.¹⁹⁾ 구비문학 관련 과목이 특성화된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역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문화콘텐츠 관련 과목에서도 지역적 특색을 활용하여 지역의 신화와 전설, 민요와 민속극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김해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구비문학 관련 강좌라 할 수 있는 <이야기문학과 문화콘텐츠> 라는 교양 과목을 맡아 강의하고 있다. 이 강좌는 구비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문화콘텐츠를 기획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학생들의 호응이 높았고 문제의식을 갖게 만들었던 수업은 가야문화축제 제전위원회를 방문하여 축제 기획에 대해 논의한 것과 ‘경남문화유산 스토리텔링 공모전’ 출품을 위해 김해지역 문화원형을 조사하고 콘텐츠를 기획한 것이었다. 이러한 활동은 스스로가 문화의 생산주체가 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강의안이나 교육방법, 결과물을 토대로 다양하게 논의해야 하겠지만, 여기서는 구비문학 관련 교양 수업의 현황을 확인하고 문제를 제기하며,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지식을 체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업을 이끌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논의를 정리한다.

학생들은 단순, 명료하고 이수하는 데 부담이 없는 교양과목을 절대적으로 원한다. 직업선택에 필요한 실용적인 강좌를 개설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교양교육이 모두 실용 교육이 될 수는 없다. 교양 과목에서 자신에게 직결된 삶의 문제를 발견하고 질문하며, 이에 대해 솔직하고 진지하게 해답을 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된다면 학생들은 전인적 인성과 학문하는 자세를 갖춘 교양인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전공 분야의 연구자들은 관련 교과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

19) 임재해, 「지역화의 문화적 전망과 민속문화의 문화주권 이식」, 『한국학논집』 제33집, 2006, 339면.

고 심도 있는 교양 교육을 위해 해결점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교육통계서비스(부가서비스/ 학과정보서비스) <http://cesi.chedi.re.kr/>
김종철, 『국문학 연구의 문화적 패러다임 : 문학교육의 문화론적 관점』, 『국문학과 문화』, 한국고전문학회, 2001, 85-102면.
김헌선, 『21세기 구비문학의 문화사적 위상 - 구비문학개설류 분석과 전망에 근거하여』, 『구비문학연구』 제6집, 1998, 445-477면.
김희교, 『이것이 문제라고 본다 - 학생들이 본 교양과목의 현황과 과제-』, 『인문사회과학논문집』 29집, 광운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0, 130-145면.
노나카 이쿠지로, 『지식창조의 경영』, 이십세기북스새날, 1995, 1-372면.
류종목, 『민요론 강의의 범주와 계획』, 『구비문학연구』 제6집, 1998, 517-539면.
박경신, 『巫歌 수업의 한 모형』, 『구비문학연구』 제6집, 1998, 541-561면.
박진태, 『민속극교육론』, 『구비문학연구』 제6집, 1998, 581-610면.
신동훈, 『21세기 구비문학 교육의 한 방향 - '신화의 콘텐츠화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15집, 2007, 59-87면.
심경호, 『한국 고전문학교육의 현황과 과제』, 『문학교육학』 6호, 2000, 317-338면.
이강욱, 『초등학교 고전소설 교육의 의의와 방향』, 『어문학』 제88집, 한국어문학회, 2005, 129-161면.
임제해, 『"지역화"의 문화적 전망과 민속문화의 문화주권 인식』, 『한국학논집』 제33집, 2006, 335-394면.
정병현, 『대학 고전문학 교육의 현상과 전망』, 『한국고전연구』 15집, 2007, 5-26면.
조희웅, 『설화 교육론』, 『구비문학연구』 제6집, 1998, 505-516면.
최동현, 『판소리론 교육』, 『구비문학연구』 제6집, 1998, 563-579면.
최미리, 『미국과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 비교』, 양서원, 2001, 1-208면.
최원오, 『구비문학 관련 강좌의 실태조사 보고』, 『구비문학연구』 제6집, 1998, 479-489면.

한준상, 『모든 이를 위한 안드라고지(LIFELONG EDUCATION)』, 학지사, 2000, 1-326면.

황루시, 『구비문학 현지조사론 - 연구의 흐름과 강의안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6집, 1998, 491-503면.

ABSTRACT

A Current State of the Class on the Oral Literature
and the Oral Literature as a liberal Arts

Kang, Sung-sook*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find a way that manage the cultural study subject in relation to the oral literature in the university. For the research about the current state of the class in relation to the oral Literature I investigated the classes on the oral literature in the 123 universities. Upon this investigation I found that the 70 universities give the 330 subjects of special study, and the 56 universities give the 110 cultural study subjects in relation to the oral Literature. In the case of the special study, the number of the culture or culture contents class is increasing by comparison with the study in 1998. In the case of the cultural study the number of folk or culture class is increasing by comparison with the study in 1998.

The problems of cultural study class in relation to the oral Literature are that 1) the curriculum is just listing the fragments of informations 2) there is no specific method of education that make students understand the character of oral literature 3) the curriculum lacks the recognition on the main agents of the oral literature, 4) there is no specific course of study for the expressions in the oral literatur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liberal arts on the oral literature, I propose to take the standpoint of locality or minority.

Key Words oral literature, major, special study, liberal arts, cultural study subject, locality, minority, university

논문투고일 : 2010. 10. 15

심사완료일 : 2010. 11. 26

게재확정일 : 2010. 12. 3

* Inje University

전국 대학 국어국문학과(민속학과, 문예창작학과, 문화콘텐츠학부)

구비문학관련 강좌 개설 현황표 (학부)

번호	대학교	전공 개설 과목명 (학년-학기)	교양 개설과목명
1	강릉대	한국구비문학론 (2-2)	신화와 문화 지역사회문화론 영동지방의 역사와 민속 동아시아 문화원류와 강원의 신명문화
		한국노래문학론 (3-1)	
2	강원대	문화콘텐츠학 입문 (2-1)	한국의 역사와 문화 강원의 문화와 사상
		구비문학과 민중의식 (2-2)	
		문화콘텐츠탐사 (2-2)	
		문화콘텐츠개발실습 (4-1)	
3	건국대	구비문학의 세계 (2-1)	신화와 영화 신화와 철학 이야기와 인간관계
		고전과 생활문화 (3-1)	
		고전과 문학치료 (3-2)	
		고전문학과 콘텐츠 (3-2)	
4	경기대	한국구비문학과 민속 (2-1)	한국의 전통문화
5	경남대	구비문학의 이해 (3-1)	한국문학과 성 한국민속과 전통문화
		문화 콘텐츠 입문 (1-2)	
		문화콘텐츠 기획 (2-1)	
		지역문화콘텐츠 탐사 (2-2)	
		축제콘텐츠 기획 (2-2)	
		문화콘텐츠 기획론 (3-1)	
		문화원형콘텐츠 개발 (3-1)	
		문화콘텐츠 개발 (3-2)	
		문화콘텐츠 창작실습 (4-2)	
한국가면극의 이해 (4-1)			
6	경북대	한국구비문학 (3-1)	영남지역의 이해와 답사
7	경상대	구비문학론 (3-2)	한국민속의 이해
8	경성대	한국구비문학 (2-2)	(개설 안 됨)
9	경원대	구비문학론 (2-1,2)	한국문화의 이해
10	경희대	구비문학개론 (2-2)	신화와 문학
		문학과 문화콘텐츠 (3-1)	한국의 민속
11	계명대	문화콘텐츠와 문화산업 (1-1)	한국의 전통과 문화 한국인의 삶과 민속
		한국구비문학 (3-2)	
		한국문학과 전통문화 (4-1)	

12	고려대	구비문학론 (2-1) 전통연희론 (3-2)	한국의 전통연희와 동아시아 신화의 세계 판소리의 이해1. 2 한국민요와 대중가요 한국전통문화의 이해 판소리와 창극의 세계
13	관동대	문화컨텐츠개발실습 (3-1) 문화컨텐츠개발론 (3-2) 한국문학의 원천 (1-1) 한국문화의 원형 (2-2)	영상으로 보는 우리문화의 원형
14	국민대	구비문학의 이해와 현지조사 (2-1) 이야기문학의 세계(4-2)	이야기문학의 이해 한국고대의 생활과 문화
15	군산대	구비문학론 (2-1,2) 전통연희론 (2-1,2) 판소리 문학론 (3-1,2)	(개설 안 됨)
16	단국대(죽전)	설화문학론 (2-2)	(개설 안 됨)
	단국대(천안)	구술문학의 이해 (1-2) 문학콘텐츠의 이해 (2-1) 대중문화와 문학콘텐츠 (3-1) 한국옛노래문학 (3-2) 문학콘텐츠의 기획과 실제 (4-2)	(개설 안 됨)
17	대구대	구비문학의 세계 (3-2)	한국의 역사와 전통문화 한국의 역사와 문화 한국전통문화의 이해
18	대전대	한국민속학 (3-2) 문화콘텐츠론 (3-1)	한국인의 삶과 가치관
19	덕성여대	한국구비문학론 (3-1)	신화와 예술
20	동국대	구술문학론 (3,4-1)	문학속의 삶과 세계 민속학의 이해 한국의 전통문화
21	동아대	구비문학개론 (2-2) 디지털스토리텔링 고전문학콘텐츠	민속문화의 이해 구술사와 기록관리 부산경남지역사회연구
22	명지대	신화와 설화 다시읽기 (3-1) 구비문학론 (4-1,2)	(개설 안 됨)

23	목원대	구비문학론 (3-2) 민속학개론 (4-1)	(개설 안 됨)
24	목포대	구비문학의 이해 (2-2) 한국의 민속문화 (2-2) 설화의 세계 (3-2) 문학과 문화콘텐츠 (4-1) 호남인과 호남문학 (4-2)	호남지방의 역사와 문화 지역축제와 이벤트
25	부산대	구비문학의 이해 (2-1)	부산의 역사와 문화 한국인의 삶과 미의식 민속문화와 전통문화
26	부산외대	구비문학의이해 (2-2)	한국의 민속문화
27	서강대	구술문학론 (3-1) 이야기창작 (4-1,2) 전통연희론 (3-2) 민속학개론 (3-2)	(개설 안 됨)
28	서경대	구비문학의 실제	(개설 안 됨)
29	서남대	이야기문학과 한국옛소설 읽기 (2-1) 한국민요론 (3-2) 한국민속연희와 공연예술 (4-1) 이야기문학과 한국 옛소설읽기 (4-2)	(개설 안 됨)
30	서울대	한국구비문학론 (4-1)	한국인의 삶과 문학 한국의 민속
31	서울시립대	구비문학론(4-2)	한국인의 삶과 문학
32	서울여대	구비문학론 (2-2)	우리민속과 민속문학
33	서원대	문화콘텐츠와 고전 (1-1) 한국구비문학론 (4-1)	한국민속의 이해 한국전통문화의 이해
34	성균관대	구비문학론 (3.4)	문화콘텐츠 비즈니스
35	성신여대	구비문학의 이해 (1-2) 고전문학과 콘텐츠 (3-2) 설화와 스토리텔링 (3-1)	신화의 세계
36	세종대	(개설 안 됨)	판소리감상
37	수원대	구비문학론 (4-2)	(개설 안 됨)
38	숙명여대	한국민속과 문학 (전체-1) 국문학과 사상 (전체-1)	한국문학과 문화콘텐츠 한국문학과 전통 한국의 문화콘텐츠

39	순천향대	이야기읽기문학(2-1) 민속문화기행 (3-1) 미디어문학의 이해 (4-1) 입말문학의 이해 (4-1)	우리문화 민속학의 이해 아산문화의 이해와 탐방 문화콘텐츠의 이해 고전을 통해 본 생활의 지혜
40	송실대	구비문학의 이해 (2-1) 콘텐츠창작론 (2-1)	한국민속학과 콘텐츠 한국전통사회의 생활과 문화
41	아주대	구비문학론 (3-1)	역사와 신화 한국의 고전문화
42	안동대	구비문학론 (2-2) 민속학의 이해(2-1) 민속학과 현지조사 (2-1) 민속과 여성 (2-2) 민속예술의 이해 (2-2) 한국의 세시풍속 (2-2) 민속자료와 아카이브 (3-1) 민속놀이와 놀이문화 (3-1) 이야기와 문화콘텐츠 (3-1) 민속과 영상 (3-1) 한국인의 일상예례 (3-2) 민속극의 풍자와 신명 (3-2) 생업전통과 지역문화상품 (3-2) 축제문화와 축제기획 (3-2) 민요전통과 노래문화 (3-2) 민속학특강 (4-1) 무당과 굿 (4-1) 신화와 스토리텔링 (4-1) 민속학과 관광 (4-2) 지역문화와 문화산업 (4-2)	문화와 영상 안동지역의 전통문화
43	연세대	한국구전이야기의 탐색 (3.4-2) 야담과 설화의 강독1 (2-1) 야담과 설화의 강독2 (2-2)	신화와 철학 문화콘텐츠와 창조적 상상력 축제문화의 이해 동아시아신화기행
44	영남대	구비문학의 이해 (3-2)	여성고 신화 신화의 이해 영남문화유산의 이해
45	울산대	구비문학론 (2-2)	한국사와 한국문화

46	이화여대	한국의 구비문학 (3-1)	이야기와 삶 문화로 읽는 한국인의 역사·의식 신화적 상상력과 문화
		이야기와 스토리텔링 (2-2)	신화와 사상 선인들의 문화공간과 예술 한국의 탈춤 디지털스토리텔링의 이해
47	인제대	한국인의 삶과 구비문학 (3-1)	이야기학과 문화콘텐츠
		한국문화와 문화콘텐츠 (3-1) 한국의 전통문화 (2-1) 한국문화와 문학치료학 (3-2)	
48	인천대	한국구비문학론 (3-1)	한국민속과 전통문화
		한국고전문학콘텐츠화의 이론과 실제(3-2) 인천의 축제문화 (2-1) 인천의 언어지리와 문화 (3-2)	
49	인하대	한국민속학의 이해 (전체-2)	한국전통문화기행
		구전문학의 이해 (전체-1) 문화콘텐츠와 내러티브 (2-2) 대중문화콘텐츠개발및실습 (3-2) 문화콘텐츠현장실습 (2-1) 문화콘텐츠와 기호마케팅 (3-2) 문화브랜딩과 문화콘텐츠 (3-2) 디지털문화콘텐츠 (2-2) 문화콘텐츠학입문 (2-1) 문화콘텐츠분석방법론 (3-1) 신화와문화콘텐츠 (3-1) 한국의 문화원형분석 (4-1) 축제와 문화콘텐츠 (4-1)	한국문학속의 풍속
50	전남대	한국민속학개론 (1-2)	(개설 안 됨)
		한국구비문학론 (3-1)	
51	전북대	구비문학론 (3-2)	한국문학과 문화현상
		이야기문학론 (4-1)	
52	전주대	이야기원형과 문화콘텐츠 (3-2)	문화콘텐츠와 뉴미디어
		고전과 스토리텔링 (4-2)	
53	제주대	구비문학개론 (2-1)	제주의 역사와 문화 제주 해녀와 에코페미니즘
54	조선대	구비문학론 (2-2)	한국의 민속
		한국민속학 (3-1)	한국의 전통문화

55	중앙대	이야기국문학 (1-1)	문화콘텐츠입문 한국민속문화 한국민속의 이해
		문화콘텐츠시나리오론 (2-1)	
		구비문학론 (3-2)	
		민속과 대중매체 (2-1)	
		민속문학론 (1-1)	
		민속학개론 (1-1)	
		한국의 축제 (1-2)	
		신화론 (2-1)	
		민속학방법론 (2-1)	
		민속학사 (2-1)	
		아시아민속의 이해 (2-1)	
		민속관광론 (2-2)	
		민속놀이론 (2-2)	
		민속언어전승론 (2-2)	
무속론 (3-1)			
민속상징론 (3-1)			
비교민속론 (3-1)			
통과의례론 (3-1)			
민간신앙론 (3-2)			
민속문화론(3-2)			
민요론 (3-2)			
한국민속의 개발과 응용(3-2)			
현대민속학 (3-2)			
민속학특강 (4-1)			
56	창원대	구비문학론 (2-2)	한국민속의 이해
57	충남대	구비문학론 (2-2)	충청지방의 역사와 문화 한국지방의 역사와 문화
		설화론 (4-2) 민속학의 이해	
58	충북대	구비문학론	(개설 안 됨)
59	한림대	구비문학론 (전체-3)	한국의 민속 민속학의 이해
60	한신대	구비문학론 (3-1)	지역문화와 축제 문화산업과 문화콘텐츠
		국어국문학 현장답사 (3-2)	
		신화상상력연구	
61	한양대	(개설 안 됨)	문화콘텐츠의 비전과 전략
62	홍익대	구비문학론 (4-1)	(개설 안 됨)
63	평택대	구비문학론 (3-2)	이야기문학과 인생
		문화콘텐츠의 이해 (1-2) 문화콘텐츠와 문학 (4-1)	

64	부경대	구비문학론 (2-1,2) 고전문학과 문화콘텐츠 (2-1,2) 이야기구성론 (3-1,2)	한국의 전통문화
65	서울 디지털대	옛이야기 이해와 응용 신화의 이해와 창작	(개설 안 됨)
66	서울산업대	구비문학	(개설 안 됨)
67	세명대	구비문학론 문화콘텐츠론	한국전통문화의 이해 민속학의 이해
68	충주대	구비문학 문화콘텐츠의 이해와 기획	민속학의 이해
69	한남대	구비문학론	(개설 안 됨)
70	협성대	(개설 안 됨)	한국의 민속문학